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박 정 란** · 강 동 완***

- I. 들어가며
- II. 주요개념 및 연구방법
- III.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 IV. 북한 주민의 남한 입국 후 '왜곡된 남한 상(像)' 추이: '상상'에서 '실제'로
- V. 나가며

국문요약

북한 내에 남한 매스미디어가 유입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하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사회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와 남한에 대한 비판적 교육·선전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시청한다고 해도 인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상업적 미디어의 특성상 내용의 폭력성, 선정성 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남한 미디어 시청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교육·선전으로 형성하게 된 남한체제, 사람에 대한 인식 틀에 남한 미디어가 부각하는 남한 사회의 부정적 단면들이

더해질 경우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틀은 더욱 확대·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왜곡된 상(像)'에 주목한다. 본 글은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남한 미디어를 시청, 청취하면서 남한에 대한 왜곡된 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내용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남북한 통합에 주는 한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형성하게 된 남한에 대한 인식이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해 '실제' 상황을 접해가며 어떠한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에 주는 시사점도 논한다.

주제어: 한류, 북한 한류, 남북한 통합, 문화접변, 대중문화, 상업적 미디어

* 본 글은 (사)통일문화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2011년 12월 10일에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 후 토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 본지에 실리기까지 익명으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I. 들어가며

북한 내에 남한 매스미디어가 유입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부 정보와 문화를 엄격히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단속을 넘어 남한의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오락 등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CD(DVD), USB 등을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의 확산수준을 넘어 그동안 폐쇄되었던 북한사회와 나아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남한 매스미디어의 북한 내 유입과 유통은 분단된 남북한 사회를 넘나드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고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주입된 정보를 통해 남한을 인식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남한 미디어가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출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의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선정적인 폭력, 성애 등의 묘사는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왜곡된 상(像)을 고착화시키고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¹

지금까지 북한의 한류 현상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남한 영상물이 북한 내부에 유입되고 대인·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과정 등이 다루어져 왔다. 또한 남한 미디어를 시청·청취하는 북한 내 수용자들의 의식변화와 동서독의 사례도 분석된 바 있다.²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에서 유통되고 수용자 폭을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분명 사회문화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미디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비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업적 미디어가 지니는 폭력성, 선정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남한 미디어 수용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의식 변화의 역기능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통제하려 할 뿐 아니라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교과 과정과 사상학습, 문예 등을

¹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 『북한학보』, 제36집 1호(북한연구소, 2011), p. 104.

² 주요 선행연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2장에서 다루기로 함.

통해 부정적 이미지로 재연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쌓여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지 속에서 남한 미디어가 부각하는 남한 사회의 부정적 단면들이 더해질 경우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의 틀은 더욱 확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 다시말해 북한 당국의 선전과 교양학습을 통해 형성된 왜곡된 이미지는 실제 남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재확인 되어 더욱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재연되는 남한의 ‘상징적 세계’는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글에서는 특히,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왜곡된 상(像)’에 주목한다. 기존의 북한에서 확산되는 한류 현상에 대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초보적 관심의 수준을 넘어 이제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남한 미디어 시청을 통해 어떠한 인식 변화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남한 매스미디어를 시청, 청취하면서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과 내용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남북한 통합에 주는 한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북한에서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정이 탈북 후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떠한 구조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II. 주요개념 및 연구방법

1. 매스미디어의 ‘상징적 세계’와 수용자 인지

매스미디어를 통해 재연되는 ‘상징적 세계’는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극화되어 구성되곤 한다. 매스미디어의 상업화는 보다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폭력적, 선정적인 소재와 내용들로 채워진다. 이같은 미디어의 폭력과 선정성의 문제가 대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지적되었던 문제이다. 미디어의 발달과 영화, 드라마, 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콘텐츠의 확산은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있어 미디어의 내용과 실체가 교차되며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³ 남한 영상물을 통해 보여지는 남한의 체제와 사람의 모습은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순기능’ 내지 ‘역기능’ 모두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물론 가시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순환과정을 거쳐 상호 역의 구조로 나타날 수 있음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 pp. 103-104.

텔레비전 다(多)시청이 현실 세계의 폭력 발생정도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범죄 활동 및 범죄 통계와 관련한 부정확한 믿음⁴을 갖게 한다는 연구들이 입증되면서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나타나는 선정성, 폭력성 등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다양한 경험세계와 정보가 미디어 수용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 더욱 불거질 수 있다. 비판적이고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만큼 미디어 내용을 각인하고 정서·인지적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행동으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 학습 관련 개념이 기폭효과(priming effect)이다. 기폭효과(priming effect)란 미디어 수용 이전에 습득된 개념, 사고, 지식 등이 미디어 내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미디어 수용 이전의 개념, 사고, 지식을 상기시키며 미디어 내용과 연결되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화의 과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영구적으로 연관되기도 한다.⁵ 또한 기폭의 활성화는 미디어 수용자의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폭효과와 개념을 관련 모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장선반모델(storage bin model), 저장 배터리모델(storage battery model), 시냅스관점모델(synapse view model)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저장선반모델은 미디어 수용자의 기억 층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선반에 과거 기폭된 개념을 밑으로 하고 그 위에 최근에 기폭된 개념들이 쌓여 진다는 것이다. 저장 배터리모델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두뇌 속에 특정 개념들이 계속 보강될 경우 장기적으로 강한 충전효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시냅스관점모델은 저장선반모델, 저장배터리모델 중 어떠한 개념이 중요한가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 저장선반모델은 단기적 효과를 암시한다면, 저장 배터리모델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기폭효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기폭효과가 활성화되는가의 정도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그 조건으로는 ①지각된 의미, ②지각된 정당화 가능성, ③미디어 수용자의 등장인물과 동일시 정도, ④지각된 현실감 등이다. ①지각된 의미란 미디어 수용 이전 학습 내지 경험을 통한 기억이 미디어 수용 시 재활성화 되면서 기폭효과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 시청 이전에 지각된 정보가 매스미디어 시청 내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②지각된 정당화 가능성은 시청한 내용대로 행동할 경우 야기

⁴ 제닝스 브라이언트·수잔 톰슨 지음, 배현석 옮김, 『미디어 효과의 기초』(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 167.

⁵ 위의 책, p. 140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될 수 있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기폭활성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③등장인물과 동일시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등장인물과 정신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기폭효과를 활성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지각된 현실감은 매스미디어의 내용을 얼마나 현실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폭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기폭효과는 소련, 동유럽에서 자본주의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누적되면서 나타나기도 했다. 소연방 해체 이전 1960년대부터 소련에 확산되었던 비틀즈의 음악이 청년층, 여성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련의 대중문화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정치체제 변화로 나아가는⁷ 기폭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글에서 살펴볼 북한 주민의 남한미디어 수용을 통한 ‘남한 상(象)’은 미디어 효과 중 인지효과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정서적 효과, 인지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미디어 시청 내용으로 공포, 불안 등을 느끼는 정서적 차원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미디어의 내용이 극대화되면서 전체 사회에 대한 공포, 불안으로 인지되어 신념체계화 하게 되는 것을 인지효과라 한다. 남한 영상물에 대한 수용자(audience)인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내용, 즉 인지 효과를 다루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특정한 내용을 남한 사회라는 실제 공간의 전 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지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남한 미디어가 지니는 특성에 기인한 프로그램 특이성(program specificity)이며, 다른 하나는 상황 특이성(situation specificity)이다. 프로그램 특이성은 미디어의 프로그램 내용이 담고 있는 특정 내용을 부각하게 되는 데에서 기인하는 인지 효과이다. 상황 특이성은 수용자(audience)가 처한 개인·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인지 효과를 의미한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미제국주의 식민지,’ ‘혈벗고 굶주린 사회,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본가의 압제’라는 구도이다. 특히, ‘지주와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 ‘썩고 병든 자본주의’ 등이 북한에서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하다. 남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찢러도 피한방을 나올 것 같지 않은 안기부요원,’ ‘자기가 살기 위해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폭행이 난무하는 무서운 사람들⁸로 묘사될 만큼 자본

⁶ 위의 책, p. 140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⁷ Sergei I. Zhuk, *Rock and roll in the Rocket city: The West, Identity, and Ideology in Soviet Dnepropetrovsk, 1960-1985*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내용 참조.

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인간형으로 각인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사회 구조 인식과 이로 인해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남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학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남한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선과 악’의 구조에서 ‘자본’을 앞세운 ‘악’이 ‘선’을 누르는 구도가 부각되면서 남한의 실제 사회 전체의 모습으로 과잉 해석하게 된다. 또한, 남한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군상으로 ‘조폭’이 다루어지면서 남한 내의 폭력성 인지는 극대화된다.

이와 동시에 남한 사회를 과잉 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남한의 경제발전상, 그리고 성성(sexuality)에 있어 미디어에 등장하는 남성을 과잉 해석해 남한 남성 전체의 이미지로 인지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매스미디어 시청과 문화적 상황(context)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용자의 가치관, 고정관념 등 문화적 상황이 매스미디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 사회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며, 세대에 따라서도 매스미디어 시청의 상호작용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문화기술적 연구방법 가운데 심층면접법(In-dept Interview)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북한이탈주민 15명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여성이 10명, 남성이 5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5명이며 10대, 20대가 각각 2명, 50대 1명 순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는 2000년 이후에 북한을 탈북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탈북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이전이 4명이며, 나머지 11명은 모두 2005년 이후부터 최근에 탈북한 경우이다. 북한에서의 주 거주지는 남한 영상 매체를 주로 시청했던 지역을 의미하는데, 함경북도 8명, 함경남도 2명, 평안북도 2명, 양강도 2명, 강원도 1명, 개성시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사례4의 경우 함경북도와 개성시 두 곳에서 모두 시청하여 복수응답한 경우이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은 2011년 7월 5일부터 2011년 7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⁸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든다』 (서울: 늘봄플러스, 2011), p. 97.

<표 1> 면접자의 사회경제적 배경⁹

번호	성별, 나이	직업	학력	탈북시기	입국시기	주거주지
사례 1	남성 20대	편의봉사 노동자	중학 졸업	2010.7	2010.9	함경북도
사례 2	여성 40대	주부/ 장사	중학교 중퇴	2009.3	2009.10	강원도
사례 3	여성 30대	기동예술 선전대	전문학교 졸업	2004.4	2004.9	함경북도
사례 4	남성 40대	농사	중학교 졸업	2005.5	2009.3	개성시, 함경북도
사례 5	여성 40대	주부	중학교 졸업	2003.11	2004.4	함경남도
사례 6	여성 30대	주부	중학교 졸업	2004.2	2004.3	함경남도
사례 7	여성 40대	장사	중학교 졸업	2007.7	2009.1	평안북도
사례 8	남성 10대	학생	중학교중 중퇴	2007.5	2009.1	평안북도
사례 9	여성 30대	부기 지도원	대학 졸업	2009.1	2010.4	함경북도
사례 10	남성 10대	학생	중학교 중퇴	2010.5	2010.12	함경북도
사례 11	여성 50대	노동자	중학교 졸업	2006.10	2007.3	함경북도
사례 12	여성 40대	미용사	전문대학 졸업	2009.10	2010.3	양강도
사례 13	남성 30대	군인	전문대학 중퇴	2004.7	2005.2	함경북도
사례 14	여성 30대	군인	중학교 졸업	2009.9	2010.6	양강도
사례 15	여성 20대	장사	중학교 졸업	2010.8	2010.10	함경북도

*학력에서 북한의 중학교는 남한의 중·고등학교 학제가 합쳐진 것임.

⁹ 면접참여자의 신변을 고려하여 탈북, 입국일 및 세부지역명은 본 표기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나. 선행연구 및 분석틀

남한 영상물의 북한 내부 유통 및 의식변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1990년대 북한 도시 지방 주민들의 외부정보 실태를 조사한 이주철의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변화,”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후 강동완·박정란의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2009)” 연구는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구조를 지역간, 대인간 구조로 나누어 북한 내부에서 남한 영상물이 어떻게 유통, 시청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후 박정란·강동완의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2011)” 연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의식변화 관점에 초점을 두고 하위문화 형성의 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남한 영상물의 시청과 소감공유 등이 어떻게 주민들 상호간에 동화되는지, 또한 이러한 동화의 과정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가치관, 행위 양식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진행남(2011)의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은 최근 북한의 한류 현상과 관련한 주요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매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확산되는 남한 미디어의 실태라는 현상적 분석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북한 당국이 선전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우, 즉 남한 영상물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환상과 동경의 대상만이 아니라 왜곡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수용하는 남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수용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나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시청한 남한 드라마, 영화 등의 목록은 전 장르를 망라 하는데 특히 공포 스릴러, 액션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¹⁰ 이는 남한의 대중문화가 갖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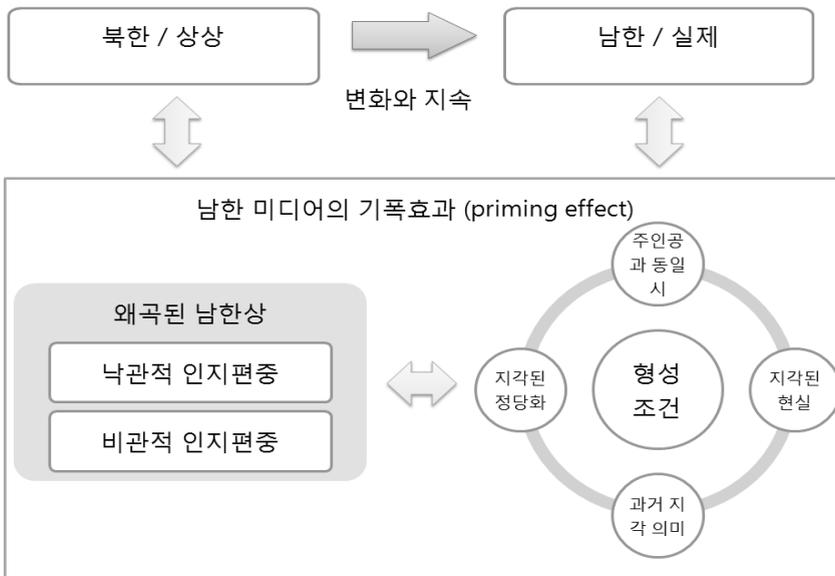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접하기 이전 저장되었던 그동안

¹⁰ 북한에서 유통되는 남한 영상물의 목록은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pp. 32~33;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7/2011100700584.html> 참조.

의 남한에 대한 상(像)이 매스미디어의 내용과 일치하면서 쌓이게 될 경우, 그리고 교육받았던 남한의 모습과 상이한 매스미디어의 내용이 상호 교차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인지 속에서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본 글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수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를 넘어 북한주민들의 남한 미디어 수용 효과 중 특히 남한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주목한다.

즉,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접하기 이전 개념, 사고, 지식 등이 남한 미디어와 접합되면서 남한에 대해 어떠한 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특히 미디어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을 전체 남한사회와 등치시키며 '왜곡된 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 내부 뿐 아니라 탈북 후 남한에 입국 해 더 이상 상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인지되어 가는 조건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인식으로 구조화 되는가를 분석한다. 한편,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개념도



Ⅲ.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1. 인지 과정 및 내용

가. 비관적 인지 편중: ‘부패한 자본주의’

(1) 배금주의: ‘돈을 위해 못하는 짓이 없는’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비관적 인지 편중 내용 중 하나는 배금주의에 대한 것이다. 즉 남한 사람들에 대해 ‘돈을 위해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과정에는 남한 미디어 수용자(audience)가 북한 현실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강화’되고 있었다. 미디어 시청 이전 북한 당국이 남한 사회에 대해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라고 교육한 내용이 각인된 상황에서 남한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는 특정 내용이 부각되어 인지되면서 남한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 강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자에게 자기 몸을 저렇게 줘버린다는 게 정말 이해 안되는’ 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대한 인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대조를 이루며 보다 각인된다. 즉,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한의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례 3) 그런가하면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저버리는 군상을 그린 남한 영상물의 내용을 시청하면서, ‘그저 못된 인간들’로 남한 사람들을 인지하기도 했다. (사례 4)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불쌍한 삶은 다름 아닌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사례 5)¹¹ 이는 곧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 받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¹¹ 문제점이라면 북한에서는 그저 돈을 위해서는 못 하는 짓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내 생각에는 다 모여 앉아서 말한게 있거든요. 다 돈이라면 이렇게...부모고 형제고...(사례 4)

<표 2> ‘배금주의’ 재연과정

영화 드라마명	장면 및 내용	하위범주: 남한에 대한 상(象)	상위범주	재연 과정	사례
이브의 모든 것 (2000년작, 드라마)	#직장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데 몸을 주는 여자	직장 때문에 정조관념을 버리는 여성	하나의 고정 관념이죠. 지금 생각하면, 여기 와서 보면 그런 게 하나의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직장을 위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맘에도 안드는 남자에게 자기 몸을 저렇게 쥐 버린 다는 게 정말 이해 안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대조>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비교> 토대	3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	#돈 때문에 부모를 배반	돈이라면 부모도 형제도 없는 못된 인간들	결국에 영화 보면서 그런 말하는게. 그 무슨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라 하는게 저 새끼 들은 그저 못 된 인간들이다	<확인>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4
<가을동화> (2000년, 드라마)	#주인공의 불쌍한 삶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마음대로 하는 곳 빈익빈 부익부	야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 불쌍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걸 그러니깐 교육 받은 것 하고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깐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우리 북한에서 뭐 지주 자본가 들은 판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확인>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곳	5

(2) 폭력성: ‘깡패 집단이 차고 넘치는 곳’

두 번째 남한에 대한 이미지는 ‘폭력성’이다. 남한 미디어에 ‘깡패,’ ‘조폭’ 등이 자주 등장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해 정서적 ‘두려움’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라는 인지가 강화된다. 남한 전체 사회를 ‘폭력성’으로 규정짓는 인지 틀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남북한을 대조하거나 북한에서의 교육 내용이 교차되면서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한사회가 ‘오직 돈 많은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며, ‘남조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인식 등인데 이는 남한 미디어 내용 중 폭력적 장면이 부각되어 남한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다.

또한 남한 미디어 수용자들의 인식 속에서 남북한이 대조를 이루면서 남한의 폭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에도 젊은 사람들이 ‘살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한은 ‘집단’으로 움직이는 ‘깡패가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력성’을 지닌다고 인식한다. 무엇보다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은 ‘사회주의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한의 폭력성이 그들의 인지 속에 비교되며 부각되는 것이다.

<표 3> '폭력성' 재연과정

영화 드라마명	장면 및 내용	하위범주: 남한에 대한 상(像)	상위범주	재연 과정	사례
<붉은 마피아> (영화)	#마약장사, 폭력	오직 싸움 잘하는	그와 반면에 무슨 붉은 마피아라 던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아...남한은 저렇게 오직 싸움 잘하고, 저런 사람들 그리고 무슨 마약 장사라던가 오직 그런 사람들만 판을 치고...그런 데인가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확인> 오직 돈많은 사람이 판치는 나라	1
		마약 장사만 판치는 살 수 없는 곳			
<복수 혈전> (영화)	#오직 아버지를 위한 복수에 몰두	힘이 세면 잘살고, 힘이 없으면 못사는 곳	아니 그러면 힘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하는 구나... 우리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자체가 남조선 인민들이 수많은 굶주림과,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오직 힘이 세고 진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는...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는 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확인> 남조선 인민들은 수많은 굶주림	1
		오직 복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북한을 쓰러뜨리는 곳			
<친구> (영화)	#비오는 날 싸우며갈 침 맞는 장면	깡패가 차고 넘치는 곳	친구에서 비오는 날 싸우는 장면... 마지막에 칼침 막고, 장동건이 막 칼침 맞던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되게 좀 살벌하다는 생각? 남한에도 젊은 사람들은 살벌하구나... 저렇게 깡패가 차고 넘치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비교> 남한에도 젊은 사람들은 살벌하구나	2
		살벌한 젊은이들			
'행사 나오는 영화' <제목 기억안남>	#폭행, 강도	무서운 자본주의 세상: 약육강식, 살벌한 곳	자본주의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양육강식, 살벌하고... 그런거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사회 폭행, 강도, 절도 이런 것들... 우리는 그렇게까지 깡패집단이 폭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없거든요.	<확인> 무서운 세상 <대조> 깡패집단이 폭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북한	14

(3) 인간관계의 파괴: ‘난잡한’

세 번째, 남한에 대한 비관적 인지편중의 틀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들여다 본 남한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까지 가정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거나(영화 <올가미>),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동성애)’ 사랑하거나, 결혼하고도 ‘다’ 외도하는 사회로 그려진다. 이러한 남한 사회의 이미지는 심층면담 참여자들에게서 ‘난잡한,’ ‘자본주의 부패성,’ ‘공포심’으로 표현됐다.

<올가미>(영화)를 시청했다는 사례11은 ‘아이 엄마라는 게 아들’에게 모정이 아닌 패륜을 범하는 것을 보며 ‘진짜 자본주의사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엄마가 아들에게 집착하며 며느리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북한과 비교했다.

비정상적 집착을 보이는 모자관계 뿐 아니라 동성애를 표현한 영화를 시청한 사례는 남한이 ‘난잡한’ 곳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남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사례 14) 또한 남한 미디어를 통해 남한사람들은 ‘매날 바람 피우는’ 사람들로 인지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소수에 국한될 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남북한을 비교하며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장하고 있었다.(사례 12) 이상의 사례들을 보면 남한 사회에 대한 인지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시청→남북한 비교(대조)→미디어 내용 인지 강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4> ‘인간관계의 파괴’ 재연과정

영화 드라마명	장면 및 내용	하위범주: 남한에 대한 상(象)	상위범주	재연과정	사례
올가미 (영화)	#아이엄마라는 게 아들을	진짜 자본주의사회	아이 엄마라는 게 아들을... 진짜 자본주의 사회구나...어떻게 북한은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한국은 완전히 자본주의물을 먹어가지고 서리 저런 나라가 있는가. 그 때는 북한 물을 딱 먹은 때니깐 저런 나라가서는 어떻게 사는가 라는	<확인> 북한 물을 딱 먹은 때	11
		살 수 없는 나라			
올가미 (영화)	#동성애 #엄마하고 아들이 그러는 건	자본주의 부패성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그러는 거, 엄마하고 아들이 그러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볼 때면...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성? 그런 인식도 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응, 안 좋게 생각하지, 그런건. 자본주의라는 게. 우린 자본주의를 나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의 부패성에 대한 일면을 본 거 같고, 좋지 않았죠.	<대조> 사랑이라면 남녀관계만 <확인> 자본주의를 나쁘게 얘기하는 북한 당국	14
		안 좋게 생각하는			
‘행사 나오는 영화’ <제목기 역안담>	#동성연애	공포심	우리는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도 공포심이 좀 들죠. 한국이 웬지... 그렇지! 너무 난잡하다... 괜히 다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조> 우리로서 이해가 안되는...	14
		다 나쁜 사람들			
		난잡한			
사랑영화 (멜로장 르 총칭)	#남자가 바람피는 장면	성성(sexuality) - 한국사람들은 다 바람둥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사랑영화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남자 바람피고 그런걸 보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바람피우는 거예요.	<대조> 북한에는 없는 일 (간부층 소수한정)	12

나. 낙관적 인지 편중: ‘천국인줄’

(1) 경제발전상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형성하게 된 낙관적 인지편중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남한의 경제발전상에 대한 것이다. 남한을 ‘천국’으로까지 표현할 만큼 남한의 경제발전상은 미디어 수용자(audience)들에게 낙관적 인지 편중의 전형적 내용을 이룬다. 사례 10은 드라마 <호텔리어>를 시청하면서 ‘사회가 너무

을 남한사회의 현실로 인지하게 된다.

(2) 남성상: ‘여자를 위해 교수형까지’

두 번째 남한에 대한 낙관적 이미지는 여성들에게서 형성된 ‘남성상’에 대한 것이다. 남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존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누명을 쓰고 ‘교수형’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남한 남자들이 너무나도 ‘멋있게’ 느껴졌다. 북한에서 결혼하지 않았던 사례 9는 ‘남한에 가면 무조건 남한 남자와 만나서 연애해 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서 살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다.

<표 5> 낙관적 인지편중의 재연과정

영화 드라마명	장면 및 내용	하위범주: 남한에 대한 상(像)	상위범주	재연 과정	사례
호텔리어 (드라마)	#호텔 배경	발전상	북한 영화하고 한국 영화하고 대비해봤을 때 다르거든요. 모든 것이 진실하고 우선 영화자체가 너무나도 재밌었고 사회가 너무나도 좋아서 환상을 가졌거든요. 환상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봤는데... 그랬습니다.	<대조> 진실한 한국영화	10
남자의 향기 (드라마)	#여자를 위해서 교수형당 하는 남자	성성(sexuality) -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북한에서는 드라마 보면서 한국 남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대조> 북한에서 교육받은 남한사람에 대한 이미지	9
올인 (드라마)	#주거 환경	발전상 (발전 속도)	저런 곳 가면 집도 저렇게 멋있게 해놓고 살겠구나... 멋있는데서 나도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대조>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1억짜리 집	14

2. 인지 변화와 지속

가. 인지 변화: 비판·낙관적 인지의 상호순환

심층면담 참여자들이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 시청을 통해 인지한 남한 상은 북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비판·낙관적 인지가 상호 순환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지가 다변화되고 있었다. 그 주요한 계기 중 하나는 북한 내에서 남한 미디어 시청 횟수가 누적되면서 남한에 대해서 형성된 극단적 이미지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 14는 영화 <올가미>에서 결혼한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를 보며 ‘자본주의 부패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남자들끼리 막 좋아하는’ 동성애 장면을 시청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들을 마주하면서 북한에서 교육받은 자본주의 남한의 폐해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남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대조를 이룬다.

거부감은 안느끼죠. 북한에서 내가 볼 때는… 거부감 보다는 우린 언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걸 원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있죠. 자본주의가 무섭다는 거. 폭행, 공포… 그런거. 사회주의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있어요.(사례 14)

그러나 <대장금>(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서는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는다. <대장금>에서 ‘정말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남한사회는 정말 진실이 통하는구나’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다. 이 외에도 <올인>(드라마) 시청으로 배우들의 진솔한 감정표현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기슴으로 막 우는’) ‘진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남한영화, 드라마 시청이 반복되면서 북한에서 교육 받은 남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하기도 하고, ‘성취’, ‘진실’ 등 새로운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남한상이 재정립 되어감을 볼 수 있었다. 남녀 간에도 ‘같이’ 존댓말을 쓰는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도덕적’으로도 앞선 남한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여자만’ 남자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람 간에 비교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남한의 발전상을 목격하면서 남한에 대한 ‘거부감’이 상쇄되는 과정도 파악 된다.

사례 1은 영화 <붉은 마피아>, <복수혈전> 등을 시청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해 ‘복수’, ‘힘이 세면 잘살아가고, 힘이 없으면 못살아가는 구나’라는 인식을 각인하

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붉은 마피아>의 내용구조에서 초중반까지는 ‘돈’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 ‘사랑’으로 동기 전환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남한에도 사랑을 위한 마음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동안 남한에 대한 인식은 ‘남조선 인민들이 수많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직 힘이 세고 진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반복된 남한 영화, 드라마 시청으로 ‘아 진짜 발전된 나라’라는 인식과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남한의 농촌을 그린 장면에서 농부들이 직접 손으로 농사짓지 않고 기계화되어 있고, ‘먹을 것이 남아돌고’하는 모습이 ‘그대로’ 등장해 남한에 대한 인지 틀을 재구성해나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남한의 ‘굶주림’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는 과정에 아 진짜 발전된 나라에 대한 경제적이었던가, 그리고 한국에서 쌀이 남아돌고 먹을 것이 남아돌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우리가 알고, 지금 까지 생각 했을 때는 대한민국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직접 농사꾼들이 농사하는 것이 얼마 없어요.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어떻게 저렇게 발전이 됐지? 그 때 당시 60년대 까지만 해도 한국이 우리나라 보다 못 살았잖아요, 북한 보다 못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발전 됐지? 이렇게 자연히 생각이 가는 거예요.(사례 1)

사례 2는 남한 영화 <친구>의 폭력이 난무한 장면을 시청하면서 남한에 대해 ‘깡패가 차고 넘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남한에 대해 ‘살벌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사례 2는 <올가미>(영화), <남자의 향기>(드라마) 등을 북한에서 시청하면서 남한의 발전상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면서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넓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올가미>에서 리모콘으로 주차장 문을 열고 대저택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남한의 발전상을 느꼈다고 했다. 또한 집에 ‘엷혀사는 사람’(가사 도우미)도 저 정도 먹고 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는 인식도 갖게 된다.

사례 2가 남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계기는 <남자의 향기>라는 드라마에서다. 남한의 발전상과 더불어 여자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북한에서 그동안 교육받던 남한 경제, 남한 사람에 대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꼈다. 그 간의 인식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교육 받던 남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향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장면에서 ‘엄청’ 감동을 받게 된다.¹³ 남한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평소 아버지에게서 간혹 듣기도 했었다. 그러나 남한 영화 <올가미>를 시청하면서 발전상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완전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사례 2의 말이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은 몇 년도에 어디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이 많이 발전됐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 그 영화를 보니깐 진짜 흔히 돌아가는 말이 저런 전화기 놓는 집도 완전히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한국에서는 얌혀서 사는 집도 무슨 저런 것 텔레비전, 전화기 저런 게 다 있으니까... 야 한국은 어떻게 살길래... 야 수준이 높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올가미 보니깐 완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사례 2)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남한 미디어 시청 횟수가 누적되어 가면서 저장선반 모델(storage bin model)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정보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쌓여가면서 인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북한을 벗어나 일본 거주 경험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사전에 남한에 대한 정보를 들 수 있었던 사례들의 경우 남한에 대한 과잉 이미지가 상쇄되어 가기도 했다. 즉,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남한에 대한 폐해상과는 다른 남한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듣고 ‘지각된 의미’가 생성되어 있는 사례의 경우, 북한 당국의 정치·선전에 의해 형성된 남한에 대한 극단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기 쉽다는 점이다.

사례 11의 경우 앞서 보았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올가미>의 내용을 접하면서 ‘엄마라는 게 아들’에게 집착하는 가라며, ‘진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느끼게 되었다. 사례 11은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남한 영화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에 대해 여타 사례들에 비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다.

저는 내색 안 했지만 김정일이 반대했죠. 너무 우리는 일본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근데 그거는 뭐 북한 사람들한테 내색은 못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김정일...우린 환멸을 느껴가지고 일본에서 괜히 왔다고 후회하고...일본에서는 잘 살았거든요. 그런대로 집도 다시 짓고 잘 살고...(사례 11)

¹³ 영화를 보면은 인간 관계가 서로 위해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교양하는 걸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이렇게...(사례 2)

나. 인지 지속

북한 내에서 거주할 당시 남한에 대한 인지가 변화되지 못하고 남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남한상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서의 남한 폐해상 교육 내용이 내면화된 상황에서 남한 미디어의 내용을 통해 형성된 남한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사례 5, 9, 12의 경우 남한 미디어 수용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교육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비판적 인지를 지속하게 된다. 사례 5는 <가을동화>, <토마토> 등의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한 사회로 인식 할 뿐이었다. 앞서 보았던 남한에 대한 인지의 폭을 넓혀 가며 다변화하던 사례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교육·선전을 통해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남한) 사회’라는 인식이 머리 속에 또렷이 자리잡고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한의 발전상을 보면서도 ‘그냥 영화니깐 저 정도로 해 냈을 것’이라 생각할 뿐이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구나...근데 또 반면에 가을 동화는 불쌍하잖아요. 송혜교가 불쌍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 불쌍한 사람들은 그렇구나...그걸 그러니깐 교육 받은 것 하고 똑같이 생각했거든요.(사례 5)

두 번째는 남한에 대한 낙관적 인지를 지속해 가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폐해상을 교육받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비판적 사고를 진행함으로 남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지녔던 사례들이다. 이들은 남한 미디어 시청 이전에 형성된 긍정적으로 ‘지각된 의미’가 남한 미디어 시청과정 중에도 반영되어 남한에 대한 낙관적 인지를 강화해 나가는 사례들이다. 이는 개별 사례들의 개인적인 인지능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북한의 교육 내용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역기능으로 작용해 남한에 대한 낙관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사례 9가 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남한 미디어를 수용함에 있어 남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 9는 북한에서 ‘높은 충성심,’ ‘강한 집단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

다뤄진 남한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영화에서 그려진 남한은 ‘미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 내용은 남한 드라마를 통해 ‘진짜’로 확인하게 된다. 또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살판 치는 나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죽여도 되는’ 곳이라 확인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해서 남한 사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며 ‘상상’과 ‘실제’ 세계의 차이를 이야기 한다.¹⁴

이상의 사례들이 남한사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인지의 재구조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다음 사례 3은 남한에 입국해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 3은 북한에서 남한 사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사에게 ‘자기 몸을 쥐 버린다’는 것에 크게 놀랐었다. 하지만 남한에 입국해서 남한 사회의 가치관으로 해석해보면 북한에서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돈, 직장,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스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한다.¹⁵

¹⁴ 북한에서 예술영화다 하게 되면 그게 거기에도 기술적인 내용은 있지만, 거기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하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동되고 그런게 많아요. 예술이 많이 들어 간 것이니까 북한은...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남조선은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판치는 나라로구나...진짜 자본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죽여도 되고 그런 나라로구나... 그렇게 저도 인식이 됐어요.(사례 1)

¹⁵ 저렇게 쉽게 뭐 자기의 몸까지 휘둘러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저도 하나의 고정 관념이죠 지금 생각하면, 여기 와서 보면 그런 게 하나의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직장을 위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맘에도 안드는 남자에게 자기 몸을 저렇게 쥐 버린다는 게 정말 이해 안되는 그런 부분이었죠.(사례 3)

<표 6> 남한 입국 후 북한에서의 비관적 인지편중 변화과정

북한 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재연된 상		남한 입국 후 지각한 상		지각 과정		사 례
하위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상위개념	하위 개념	상위 개념	
폭력성	거짓말도 살인도 많은 나라	인성	대체로 온순하고 인사성이 바르고	과장	영화는 과장된 거니깐 그걸 우리가 너무 현실로 믿어가지고	4
	남조선은 눈감으면 코베가고 끔찍한 세상이다	동질감	사람 사는 건 똑같은 세상	-	-	7
대인관계-성성 (sexuality)	모두 바람둥이	-	-	허구	실제는 그렇지 않음	12
배금주의	쉽게 자기 몸까지 휘둘러야 하는지	-	-	가치관 변화	여기 와서 보면 하나의 우스운 일	3

나. 북한에서 형성된 낙관적 인지편중 변화

북한 내에서 남한의 미디어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남한 상 가운데 낙관적 인지를 보였던 사례들의 주요한 남한상은 남한의 경제발전, 복지, 성성(sexuality)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남한에 입국해 직접 남한 사회와 부딪치면서 낙관적 인지편중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남한에 대해 경제발전상을 두드러지게 인식했던 사례들이 남한에 입국해 직접 경험한 남한 사회는 ‘빈부격차’로 요약되었다. 북한에서 시청한 남한 영화를 통해 ‘다 부자들’이었을 줄 알았지만 남한에 와 보니 ‘판자집’도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화는 가상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순간이다.(사례 6) 또한 북한에서는 남한을 ‘천국’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만큼 남한 드라마, 영화 내용 중에서도 ‘멋있는 것만 눈에’ 들어 왔었다.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천국으로까지 여겨졌던 남한은 이제 탈북과 남한 입국이 ‘잘 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사례 6)

사례 8은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하며 ‘잘 사는 곳’이라는 인상이 각인된 채

남한에 입국했다. 회사사장, 고층건물, 별장 등이 등장하는 남한의 영화, 드라마는 사례 22에게 남한에 대한 낙관적 상을 극대화했다. 그런데 남한에 입국해 ‘달동네’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남한의 현실은 ‘영화하고 딴 세상’이었다.

사례 14의 경우도 북한에서 남한의 ‘멋있는 집’들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남한의 발전상을 보았지만 직접 와서 목격한 남한은 사람들 간에 ‘생활 수준의 엄청난 차’를 보이고 있었다. 남한에 와서야 생각해보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에 ‘멋있는 집’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한국)사람도 저런데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라마에서 표현한 것)’을 재현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남한에 가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청한 것과 같이 ‘저렇게 멋있게 해놓고 살겠구나’(사례 14) 했지만 ‘정작 와보니,’ 자신은 다가갈 수 없는 ‘생활수준이 엄청 차이’ 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¹⁶

사례 15의 경우도 북한에서는 남한이 ‘다 발전되고 다 잘사는’ 곳으로 인식됐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보니 그렇게 잘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작정 잘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노동이 수반된다는 것이다.¹⁷

두 번째는 북한에서 남한을 보는 낙관적 시각 중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본 남한은 ‘일하는데도 널려 있는 줄’ 알았다.(사례 6)¹⁸ 그러나 막상 남한에 입국해 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감을 맛본다.

세 번째는 여성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남한 남성에 대한 이상적 상을 극대화했던 사례들로 북한에서 ‘(남한)남자들 좋은 이미지만 가득’했다거나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남한)남자’의 모습에 남한에 가서 남한 남자와 교제하고 결혼할 결심까지 했다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남한에 입국해 실제 남한 남성들을 접하면서 여성

¹⁶ 환상이 많죠. 와 저런 곳 가면 집도 저렇게 멋있게 해놓고 살겠구나(웃음). 근데 정작 와보니 좀 다르지(웃음). 생활수준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웃음). 드라마 나오는 집들이 보통 집이 아니잖아요. (웃음) 사람들이, 드라마 보고 남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렇게 멋있는데서 나도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와서 보면 너무 다르다는걸 또 느끼고. 한국의 발전속도, 경제...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저런데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거지.(사례 14)

¹⁷ 그냥 뭐 드라마를 볼 때는...다 발전되고 다 잘살고... 근데 여기 와보니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잘 살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세금이 비싸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열심히 일 해서 사는구나...그런 걸 느끼는거지.(사례 15)

¹⁸ 일하는데도 널려있는 줄 알았지 어려운데...이런건 생각 못 했죠 어쨌든 사는 게 쉬울 줄 알았죠.(사례 6); 아니 그것 생활 보게 되면 다 현실하고 차이나죠. 이것 보고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바랍나가지고 이혼하잖아요. 총각 다 만나서 잘 살잖아요. 다 부갓집 다 거짓말이지. 하하...여기서도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난 판자촌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가상적인 것만 되겠지.(사례 6)

에 대해 경시하는 남한 남성들의 태도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탈북’이라는 전제가 ‘여성’과 더해져 자신을 ‘미개하게’까지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에 실망하며 드라마가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남한에서 직접 만나본 남한 남성들은 그저 ‘자본주의 남자’일 뿐이었다.(사례 3, 9)

<표 7> 남한 입국 후 북한에서 형성된 낙관적 인지편중 변화 과정

북한 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재연된 상		남한 입국 후 지각한 상		지각 과정		사 례
하위개념	상위 개념	하위개 념	상위개 념	하위개 념	상위개 념	
경제 발전상	다 부잣집, 다 거짓말	빈부 격차	판자집도 있는 곳	허구	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가상적인 것	6
	북한에 살 때는 옥탑방도 괜찮아 보이고...천국인줄 안 거예요		내가 잘 못 선택한 것 같다 생각한 현실과 다를 것 같다.	선호 정보	영화를 볼때 제일 멋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6
	잘 사는 곳 - 회사사장, 고층건물, 별장		달동네가 막 보이는 거	허구	영화하고 판 세상	8
	저렇게 멋있는 집		생활수준이 엄청난 차이	허구	와서 보면 너무 다름-(한국)사람도 저런데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라마에서 표현한 것)	14
	다 발전되고 다 잘사는		노동과 소득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곳	정보 한계	드라마만 볼 때는
복지	일하는데도 닐려있는 줄 알았지	노동 시장 진입	어려운 곳	-	-	6
대인 관계 -성성 (sexuali ty)	남자들 좋은 이미지만 가득	남성의 여성 경시 태도	미개적으로 생각하는	허구	드라마 환상	3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		자본주의 남자	허구	몸으로 부딪치지 못하고... 환상으로	9

2. 북한-남한 연계 인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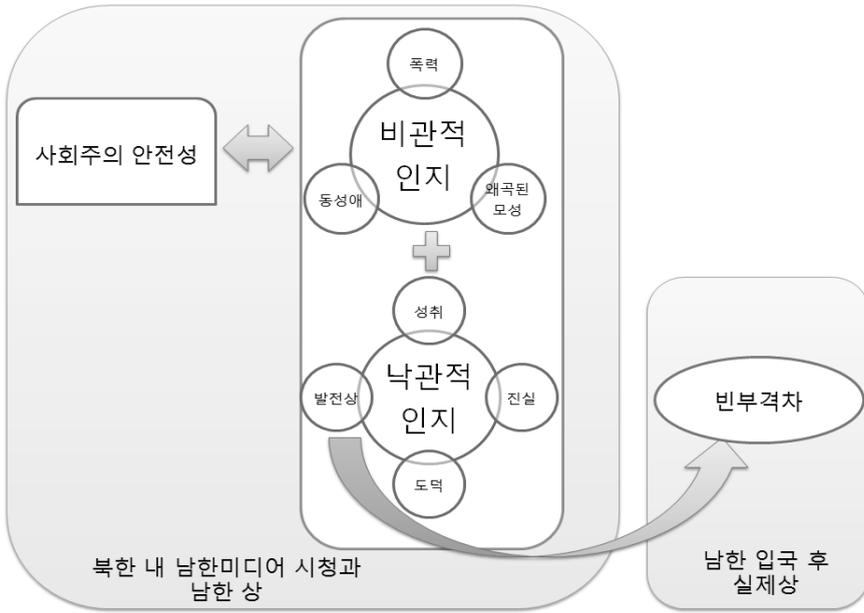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 수용 후 어떠한 남한상을 형성하였으며, 형성된 남한상이 북한 내에서 변화, 지속되는 과정과 더불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면서 어떠한 인지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북한-남한 모두에서 인지 변화를 경험한 사례,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인지가 고착화되었으나 남한 입국 후 변화된 사례로 구분될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해서는 그들이 북한에서 인지했던 남한상에 상당부분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 내에서는 정치사회화 정도, 개인적 환경과 인지 능력 등에 따라 인지의 변화와 지속 등의 양상으로 나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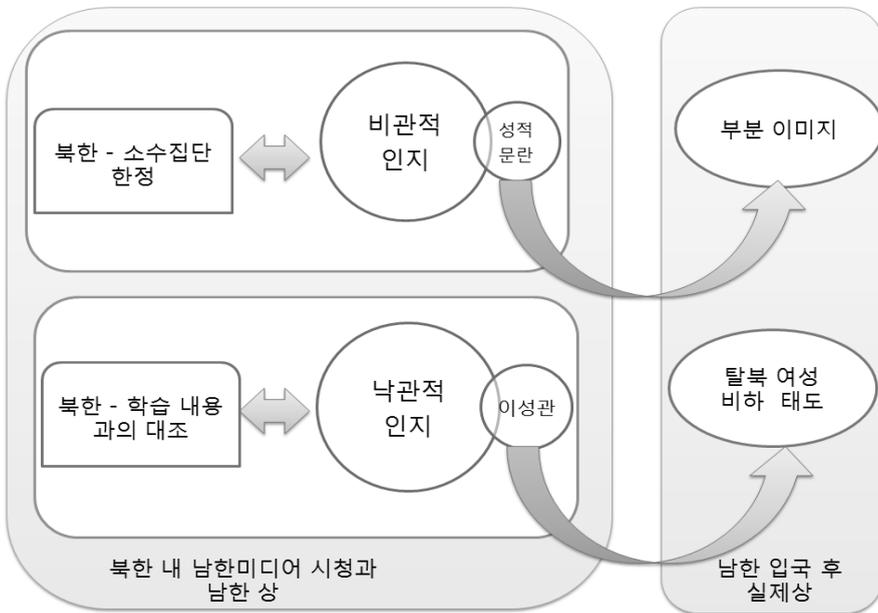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무엇보다 미디어 시청 이전 남한에 대한 정치사회화 내용, 개별적으로 습득한 정보와 남한 미디어 내용을 대차대조하며 남한에 대한 인지가 낙관적·비관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의 남한에 대한 교육 내용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미디어를 접하면서도 ‘선택적 사고’를 강화하여 편중된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 배경이 되고 있었다. 또한 남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도 엿보이며, 남한 영화, 드라마가 북한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진실’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몰입하며 수용하는 과정도 남한상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결국 남한에 대해 ‘왜곡된 상’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 조건은 남한 미디어가 갖는 내용의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남한 미디어 수용자인 심층면담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적 특성(situation specificity)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참여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사례 14, 9, 12를 통해서 구체적 인지 지속-변화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사례 14가 북한에서 인지 변화를 경험했다면, 사례 9, 사례 12는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인지가 지속된 채 남한에 입국해 변화하고 있다.

<그림 2> 사례 14의 북한-남한 내 인지 변화 과정



<그림 3> 사례 9, 사례 12의 북한 내 인지 지속-남한 입국 후 인지 변화 과정



V. 나가며

이 글은 현재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남한 미디어가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 유통, 시청의 범위와 수준을 애써 과장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 유통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이제 논의 수준을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 미디어가 북한 내에서 여타 환경 요인과 만나 북한 주민들의 의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개인 수준의 미시적 변화가 북한사회와 체제라는 거시적 수준으로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한 미디어의 확산 수준을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과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미디어를 통해 인식하는 남한에 대한 왜곡된 상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했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북한에서 형성된 남한에 대한 상을 분석하고 북한 내에서의 지속과 변화 과정, 그리고 남한에 입국해 실제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추이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북한 내 정보 통제 속에서 남한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서만 남한을 인지했던 사례들의 경우는 북한 내에서 의식의 다변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반면 북한 내에서 극단적인 대남한 인식을 보였던(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사례들 중에 의식 변화 과정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인식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인지력 외에도 남한 영상물 누적 시청이나 기타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극단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다. 또한 남한 미디어 시청 이전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작용·반작용 과정은 이후 남한 미디어 시청 시 남한에 대한 특정 부분을 극대화하는 낙관적·비관적 인지 편중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반복된 외부 정보 접촉 기회가 줄 수 있는 기회와 한계에 대한 것이다. 기회는 반복된 정보의 접촉이 북한 내에서 이뤄진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넘어 인식의 틀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 정보 매체 중 남한 미디어는 특유의 흡입력과 ‘지각된 정당성’을 자극하므로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한계가 될 수 있는 점은 외부 정보를 접하되 어떤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가이다. 남한 미디어 중 특정 장르, 내용, 프로그램 등을 자주 접하게 될 때 인식 변화의 내용도 특정 내용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남한에 대해 극단적 낙관론, 비관론에 치우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인지편증을 보였던 사례들 모두 남한에 입국해서는 북한에서 시청했던 남한 영화, 드라마 등에 의해 형성된 인식의 한계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긍정적 인식 모두 남북한 통합과정에 줄 수 있는 역작용을 생각하게 했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남한에 대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커졌고 북한에서 교육·선전하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된 사례들은 남한에 입국해 선뜻 남한 사회로 다가서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남한에 대해 ‘천국인줄’ 생각하고 ‘환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례들은 북한에서 남한행을 동경하며 남한에 입국해 ‘실제’의 세계에서 실망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두 과정 모두 남북한 통합 시 보여줄 수 있는 왜곡된 정보화 과정의 한계점들을 보게 한다.

남한에 대한 왜곡상이 낙관적이던 비관적이던 극단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인식과 향후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시 이질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면 통합의 성공여부는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 그리고 사람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미디어 시청 수준과 의식 변화 추이는 향후에도 면밀히 추적해 나갈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 과정, 남한 미디어 외 여타 정보 접촉 정도 등과 더불어 남한 미디어에서 다루는 내용이 접합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는 중요하게 관찰되어야 할 내용이다. 남한에 대해 극단적인 부정적, 긍정적 인식 모두 남북한 통합과정에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접수: 04월 16일 ■ 심사: 05월 16일 ■ 채택: 06월 0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강철근. 『한류 이야기: 한류의 근원에서 미래까지』. 서울: 이채, 2006.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전면 2개정판)』.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서울: 한나래, 1996.
 신혜경.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서울: 김영사, 2009.
 유상철·안혜리·정현목·김준술·정강현 지음. 『한류의 비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이강수. 『수용자론』. 서울: 한울, 2001.
 이교덕·임순희·조정아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장 미셀 지양 지음, 목수정 옮김. 『문화는 정치다』. 서울: 동녘, 2011.
 존 스토리 지음, 박만준 옮김.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서울: 경문사, 2002.
 진행남.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1.
 히라노 겐이치로 지음, 장인성 외 옮김. 『국제문화론』. 서울: 풀빛, 2004.
- Zhuk, Sergei I. *Rock and roll in the Rocket city: The West, Identity, and Ideology in Soviet Dnipropetrovsk, 1960–1985*.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2. 논문

- 강동완. “북한체제 특성을 고려한 SC 발전방안.” 『우리 군(軍)의 SC 발전방안』. 합동참모본부 주최 세미나, 2011.11.10.
 ————.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구조와 주민의식변화.”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제36집 1호, 2011.
 ————.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통일문제연구』. 제51호, 2009.
 이주철.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008.
 제닝스 브라이언트·수잔 톰슨 지음, 배현석 옮김. 『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존 어윈(John Irwin). “하위문화 개념의 위상에 관한 소고.” 이동연 편. 『하위문화는 저항하

- 는가』. 서울: 문화과학사, 1998.
-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기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 필 코헨(Phil Cohen). “하위문화 갈등과 노동계급 공동체 사회.” 이동연 편.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서울: 문화과학사, 1998.

3. 기타자료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7/2011100700584.html).

Abstract

A Study on the North Koreans' Acceptance of South Korean Media and Their "Distorted Images of South Korea"

Jung-Ran Park & Dong-Wan Kang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inflow of South Korean mass media into North Korea. The phenomenon has some positive effects, such as North Koreans having second-hand experiences of capitalism, freedom, and democracy and narrowing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gap from South Koreans. However, limitations with changes to North Koreans' perceptions are inevitable even with the inflow of South Korean media, since the North Korean regime controls the information fed to its citizens and engages in education and propaganda criticism against South Korea. Furthermore, commercial media intrinsically maximizes violence and sensationalism in content, which means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s' negative perceptions of South Korea can take deep root, by being exposed to South Korean media. Thus, there should be proper reactions to the potential retaliation. When the negative aspects of South Korean society are highlighted in South Korean media, it adds to the North Koreans' percep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s molded by the education and propaganda and, their distorted perceptions of South Korea will further expand and take deeper root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torted images of South Korea" that North Koreans may encounter when in contact with South Korean media.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South Korean media exposed to the North Koreans who formed a distorted image of South Korea and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Korean unification due to their perceptions. The study also discussed how North Korean defectors changed their perceptions of South Korea after moving into South Korea and being exposed to "actual" situations, as well as the implications of such processes for the social and cultural un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ey Words: Korean Wave, Korean Wave in North Korea, Un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cculturation, Popular Culture, Commercial Media